현대소설연구(제83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9.83.429

‘바보 왕’ 신화와 복화술의 정치학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오 자 은**

요약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는 그동안 한국판 『돈키호테』로, 혹은 동양적 논리의 승리를 그린 전통주의적 소설로 읽혀왔다. 이 논문은 이 두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대착오적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형 바보 주인공이라는 설정과 그 주인공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는 동양 담론이 모두 분단 이후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말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군부의 쿠데타에서 광주의 비극, 새로운 군사독재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진 1980년의 정치적 급변기에 연재되기 시작한 이 소설은 1980년의 경험이 드러낸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현대사 전체를 반추해보려는 시도로서, 정감록의 조잡한 신앙과 동양 담론의 언어와 통속적 연의체라는 외피 속에서 한민족이 20세기에 겪은 비극의 역사를 펼쳐 보이면서 그 비극을 낳은 외세와 근대적 지배 이념을 비판한다. 물론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80년대를 풍미한 민중 이념과 대결하면서 점차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작가로 자리매김되기 이전의 이문열의 정치적 태도가 드러난다.

주제어: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동양 담론, 분단, 지배 비판

* 본 연구는 202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서론
2. 수사로서의 '바보 왕'과 제3의 목소리
3.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대결과 동양 담론의 의미
4. 노장담론이라는 장치: '지배'에 대한 비판의 급진화와 탈정치화
5. 결론

1. 서론

『황제를 위하여』에 관해서는 "이문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소설"이라는 김현의 고평과 단지 "복고주의적 열정"에서 "우리 민족의 모든 노력을 싸잡아 풍자한"[1]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명인의 혹평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 작품이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이문열 스스로 낄낄거리며 썼다고 밝힐 만큼 소설이 전반적으로 무협지 활극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 '정감록'이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의 민간 예언서가 소설의 기본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 때문에 김윤식은 한 문예지 좌담에서 이 작품을 두고 현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근대적) 소설이 아니라 허황한 꿈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이에 대해 작가가 신문에 강력한 반박문을 기고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등, 떠들썩한 지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2]

이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1978년 박정희 정권 말기에 한 기자가 취재한 어떤 광인의 기록이다.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하리라"라는 정감록의 예언을 그대로 받들어 자신이 자미대제의 현신이자 황제라고 믿는 한 사내와 그 사내 못지않게 광인처럼 보이는 추종 세력이 벌이는 우

1)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류철균 외, 『이문열』, 살림, 1993, 225-226면.
2) 이문열. 「권위주의 저널비평을 거부한다」, 『조선일보』, 1991년 12월 6일자, 13면.

스꽝스러운 모험극이 이 소설의 내용이다. 그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소설이 광인 기사의 이야기인 돈키호테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해왔다. 기사도 소설을 탐독한 나머지 스스로 편력기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적인 모험을 떠나는 돈키호테와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하리라"라는 정감록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자미대제의 현신이자 황제라는 망상 속에서 몇몇 추종자들을 데리고 서양 근대 문물과 제국주의의 엄청난 물결과 대적하는 황제 사이에 일정한 유비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낡은 화승총과 활로 무장하고 일본군을 기습하려고 매복 중인 황제와 그의 오합지졸은 자연스럽게 창을 휘두르며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를 떠오르게 한다.

이때 이러한 인물의 유사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황제를 위하여』라는 작품 자체를 '한국판 돈키호테'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기존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상반된 두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 한 편에서는 이 작품을 고쳐 쓴 『돈키호테』로 본다.[3] 김현과 김미정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김현이 『황제를 위하여』가 전근대적인 세계관과 양식적 특징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근대적 소설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김미정은 반대로 『황제를 위하여』를 포함한 이문열의 여러 작품들이 독자에게 친숙한 세계문학의 고전을 한국적으로 번안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속에는 세계문학에 대한 콤플렉스가 들어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4] 『황제를 위하여』의 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번안 혹은 고쳐 쓰기의 테제를 따를 때 황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용하는 동

3) 김현, 「베끼기의 문학적 의미」, 이태동 외, 『이문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98-107면.

4)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평론가와 대중독자 모두에게 어필한 이문열의 성공은, 서양고전, 즉 한국어의 '외부'로부터 먼저 접한 문학, 교양에의 기시감을 한국어, 한국문학으로서 '번안'해준 결과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김미정, 「황제를 위하여 와 "Pour l'empereur!" 사이」, 『한국근대문학연구』 17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6, 160면.)

양적 담론은 돈키호테가 읊조리는 기사소설의 번안으로 간주된다.[5]

그러나 이와는 다른 연구의 흐름에서는 황제를 기사소설을 읽다 미쳐서 스스로 편력기사가 된 돈키호테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희극적 인물을 통해서 그가 빠져 있는 시대착오적 기사소설, 더 나아가서 중세적인 것 일반을 조롱하고 근대적 사실주의로의 길을 열었지만, 이에 반해 이문열은 정감록의 예언을 믿는 황제가 깊이 빠져 있는 동양 고전과 사상의 세계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재서가 말한 것처럼 돈키호테는 중세를 풍자하여 근대를 드러내고자 한 데 반해 『황제를 위하여』는 근대를 풍자함으로써 중세적 가치를 일깨우려 한다.[6] 정재서가 말하는 근대와 중세의 대립은 서양과 동양의 대립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때 이문열의 의도는 동양적 정신에 입각한 서양의 근대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지배하는 동양적 담론은 『돈키호테』에서 패러디되는 기사소설의 번안이 아니라 전통주의적 작가 이문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에 가깝다. 이 입장에서도 다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다. 한 편에서는 김명인처럼 이문열을 시대착오적 전통주의와 복고주의의 대변자로 비판하고, 다른 편에서는 서양 중심주의에서 탈피한 전통의 재발견, 이를 통한 새로운 서사 가능성의 개척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7]

하나의 작품이 이처럼 상이한 관점과 평가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5) 김현의 다음 비교를 보라. “간결하면서도 빠르고, 빠르면서도 유장한 그것의 문체 중에서 가진 아름다운 대목들은, 동키호테의 아름다운 대목은 그것이 비판하려 한 기사도소설의 문체를 본뜬 대목이라는 아우얼바하의 지적을 그대로 빌리면, 실록의 한문서술을 흉내 낸 곳들이다.”(김현, 앞의 책, 107면.)

6) 정재서,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에 대한 전통소설론적 접근-소설 문법의 다원화를 위하여」, 『중국소설논총』 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8.

7) 정재서의 위의 논문과 김개영,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의 전통 서사(양식)의 변용 양상」,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를 이러한 계열의 연구로 볼 수 있다.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은 정감록과 유사 종교 교주를 소재로 소설을 구상하면서 『돈키호테』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주인공을 완전한 미치광이 기사 돈키호테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문열은 한 편으로 황제를 화석화된 몽매한 믿음에 갇혀 변화한 현실을 간파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바보로 그리면서 독자에게 끝없이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동양의 역사와 전통, 철학에 통달한 황제의 입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것을 주조한 제국주의, 그에 따라온 외래 문물과 이념을 비판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작가의 진지한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측면이 현실과 신화적 세계를 혼동하는 광인 돈키호테의 흥미로운 모험을 연상시킨다면, 후자의 측면에 주목할 때 소설에서 동양적인 정신을 통한 근대 비판과 극복의 의지가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황제를 위하여』의 의미가 정감록의 미망을 조롱하는 데 있는 것도, 어떤 동양적 정신을 설파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정감록의 황당무계한 예언을 믿는 광인이라는 설정도, 그런 광인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현란하고 명석하게 구사하는 동양적 담론도, 결국은 쉽게 다룰 수 없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광인' 주인공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를 일별하는 서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사고들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황제를 위하여』는 1978년 박정희 정권 말기, 한 기자의 회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문열이 실제로 이 소설을 연재한 시기는 이미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뒤인 1980년 9월, 『문예중앙』 가을호부터였다. 이러한 시간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서술자인 기자가 처해 있는 현실의 정황은 소설을 쓰고 있는 이문열 자신의 상황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자에게 황제의 삶을 취재할 것을 요청하는 선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

기야 말세론은 허황되고 메시아는 빈약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지금쯤 한 번 그쪽을 더듬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8] 즉 이문열은 이러한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 현 상황을 '말세'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세'이며, 그렇기에 정감록이라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말세론과 메시아"(『황제를 위하여』 1권, 10면)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소설이 작가가 당면한 시대에 대한 서사적 대응으로서 의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1980년은 어떤 해인가? 1970년대의 누적된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1979년 10월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고, 한국 사회는 엄청난 권력의 공백과 혼란 속에서 1980년대를 맞이하였다. 그 혼란의 와중에 국민들 사이에서 한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공산 세력의 안보 위협을 구실로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군부 세력에 의해 다시 한번 꺾여버리고, 더욱 엄혹한 독재와 통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독재 체제가 총칼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지만, 80년 5월 광주의 비극은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분단이라는 상황과 이 나라가 어떤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내연하는 갈등은 한국 사회를 불안과 위기의식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

1979년 박정희의 죽음에서 1980년 광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은 제국주의와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 질서 속에서 진행된 한국의 굴곡진 근대 전체가 축적해온 모순과 갈등의 폭발이었고, 그 결과 남한의 체제 안에서나마 서구 선진국의 정치를 모델로 한 자유롭고 조화로운 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과 경험은,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

8)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10면. 이후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권수와 면수로 표기함.

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했고, 그것이 1980년대에 한국 근현대사 다시 읽기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집필되고 발표된 소설『황제를 위하여』가 전술한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좀더 자유롭게 말하기 위한 시도라면, 구한말에 태어나 1972년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간 광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 소설의 특이한 구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른다. 왜 이문열은 시대를 좀더 잘 대표할 만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하필이면 정감록과 같은 황당무계한 예언서를 기반으로 계룡산에 자리 잡은 사교의 교주 같은 기이한 아웃사이더를 내세운 것인가? 게다가 그가 그런 기이한 광인답지 않게 동양 고전에 통달한 조리 있는 달변가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갈등 및 이데올로기들과 대결하는『황제를 위하여』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수사로서의 '바보 왕'과 제3의 목소리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설정은 정감록이 예언한 이씨 왕조를 대신할 미래의 왕, 자미대제의 현신이자 동황태일이 낙점한 구원자 '황제'가 현실 판단력이 없는 '바보'라는 것이다. 황제의 경우 '광인'이나 '지능 부족'이라는 표현보다 '바보'라는 단어가 적합한 이유는 광기나 낮은 지능보다는 비현실적인 순진함과 타인에 대한 선의와 맹목적 신뢰가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황제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현실적인 셈속이 느리고, 너무 순진한 탓에 주변 사람들을 금방

쉽게 믿어버리고 잘 이용당한다는 의미에서 '바보'다. 그렇기에 황제는 어렸을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사기꾼들에게 속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가 가까이하는 사람마다 사기꾼 아니면 반편, 몽상가, 알코올 중독자 또는 미치광이"(『황제를 위하여』, 1권, 215면)일 만큼 황제의 그러한 성향을 알고 그를 이용하고 그에게 의존하려는 자들이 계속 꼬이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게 시혜를 베풂으로써 적어도 그의 착한 심성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이견을 가질 수 없게 한다. 이를테면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 서울 체험을 하러 가던 황제가 주막에 들러 몰락한 사대부 부인과 딸을 연기하는 사기꾼 모녀에게 완벽히 속아 전 재산을 털리는 장면을 보면, 황제의 심성이 심각하게 착하고 순수하여 결코 속세인들과는 어울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황제라고 믿는 것도 (사실 여부에 대해 서술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낸 신화에 의해 황제가 될 인물로 교육받고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독자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본인이 황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 역시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천명을 타고났다는 진심 어린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사리사욕을 위해 축재를 하는 등, 권력욕에 불타는 이들에게서 으레 볼 수 있는 부패한 면모가 전혀 없다. 이러한 황제의 모습은 한편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권력자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바흐친이 카니발적 축제를 이야기하며 언급한 '바보 왕' - "전혀 근엄하거나 엄숙하지 않으며, 일반 평민들은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9]는 바보왕의 형상을,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민담의 '성 바보' 형상을 떠오르게 한다. "세속의

9) 이노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화용론과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6권 4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10, 231면.

상식으로는 일견 무능해 보이는 이들 바보의 내면에 감추어진 가능성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뜻하지 않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기적'으로 끝이 나곤"[10] 하는 바보 이야기의 구조는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순수한 내적 가능성의 최대치의 발현"[11]을 보여준다. 이는 "지적으로 미성숙하고 나이브하지만 바보이반과 같이 도덕적인 품성은 타고난 덕"인 것이다.[12]

이러한 독특한 인물 설정이 독자에게 발휘하는 효과는 비록 자신이 황제라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코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어려운 이 '착하고 우스꽝스러운 바보'가 겪는 고난의 여정을 다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어차피 황제가 결코 정치의 중앙무대에 설 수 없는 영원한 국외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차원에서는 서술자가 거듭 인용하는 황제의 적대자들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면서도[13] 심정적으로는 황제의 입장에 더 끌리게 된다.

황제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인품은 독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그의 편에 서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황제의 인품에 반해 황제를 지켜주는 충신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황제 곁에 끝까지 남아 그를 지키는 인물들은 마숙아처럼 대부분 처음엔 황제를 우습게 보고

10) 심지은, 「러시아와 독일의 민담에 나타난 바보 인물의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23권 1호, 한국러시아문학회, 2004, 144면.

11) 같은 곳.

12) 같은 곳.

13) 예컨대 황제의 출생과 관련된 신비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두고 적대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먼저 사흘 구름이라는 것은, 황제의 생일이 음력 이월 말인 걸 보면 봄장마가 있을 법도 한 일이고 따라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누른 안개란 것도 청솔가지 때는 연기가 흩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한다. (...) 그 밖에 혜성에 관한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도 그들의 주장이었다. 사흘이나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다면 무슨 수로 혜성이 은하수를 지나 자미궁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유였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36면.)

속일 생각에 접근했다가 그의 인품과 천성, 너그러움에 감화되어 진정으로 충신이 된 경우들이다. 이러한 충신들은 황제가 제 정신이 아니며 현실 판단력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이후에도 황제의 결점은 덮어주고, 오히려 그 결점이 큰 화로 번지지 않도록 애쓰며 황제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황제는 정감록의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욕에 늘 넘쳐 있는데, 주로 감결의 구절들이 황제로 하여금 기병 계획의 구실이 된다. 그리고 언제나 출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제를 갖은 수단을 써가며 막는 것은 이 충신들이다. 그러나 그의 충신인 마숙아와 김광국이 말하듯, 그들이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렇기에 천방지축으로 사고를 칠 확률이 높은 황제를 보호하려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황제의 고귀한 천품에 감화되었고, 그것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희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 젊은 선생, 무슨 수를 쓰든지 이번 출병은 막아 주시오. 내 따로이 생각해 둔 게 있소만, 기어이 안 되거든 강압으로라도 이 일을 막으시오. 젊은 선생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 한 사람이라도 무기를 들고 이 장원을 나서게 되는 날이면, 차마 눈뜨고 못 볼 일이 벌어질 것이오.
>
> 하지만 이 일 외에는 절대로 그분을 거역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시오. 선생에게는 얼른 이해가 안되겠지만 그분은 확실히 하늘이 내린 사람이오. 지난날 나는 처음부터 그분을 속였고, 이곳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만 그를 따르는 이상한 행운에 의지해 실패한 내 인생을 복구할 마음뿐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진정으로 그분을 우러르고 믿게 되었소. 이 영악하고 거친 세상에 나는 그분처럼 착한 천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소.[14]

마숙아는 감결에 나온 임신기병이라는 글자 때문에 무모한 출병을 감

14) 위의 책, 248면.

행하려 하는 황제를 다독이며 주변인들에게 위와 같이 당부한다. 이러한 충신들의 태도는 황제의 "착한 천성"이 가진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뛰어난 현실 감각과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이 황제에 감화되어 충성하고 보위함으로써, 망상에 빠진 황제가 엉뚱한 행동에 나섰다가 낭패를 당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한다. 돈키호테의 충복인 산초 판사가 무모하게 환상의 적들을 향해 달려드는 주인을 늘 말려보지만 늘 실패하는 것과는 달리, 황제의 충신들은 목마르게 전투의 기회를 엿보는 황제를 적절히 통제하는 데 대체로 성공한다. 요컨대 황제는 돈키호테와 같은 망상가이지만 그의 순수한 바보-성(性)에 감화된 충신들이 망상의 힘을 제어하고 현실적 판단에 따라 일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의 망상이 돈키호테 소설에서처럼 줄거리를 추동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황제와 그 식솔들의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한 편의 소극이 아니라 구한말 이후 한민족이 겪어온 수난의 과정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한 일가의 비극으로 읽을 수 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우스운 장면으로 넘쳐나지만, 멀리서 개관하면 제국주의의 탄압과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서 몰락하는 비극적 가족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스운 망상의 요소를 일단 제외하고 황제의 비극적 가족사를 개괄해보자. 백석리에서 정 처사의 아들로 태어난 황제는 부유한 황진사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두었으나 삼일 만세운동 때 일본 순사와 충돌하여 일부 추종자를 데리고 만주로 도주한다. 만주에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조선 유민을 거두며 비교적 성공적인 농장주가 된다. 그러나 큰아들 융은 소작농을 부추겨 반란을 도모한 공산주의자에 동조하여 집을 떠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으로 황제는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중국 공산군이 지배하는 지역과 북한을 어렵게 통과하며 많은 것을 잃는다. 고향에 남아 있던 둘째 아들 휘가 집의 땅과 재산을 잘 보전하였으나 전쟁은 황제 일가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다. 인민군 점령 시기

에 협력을 위장하면서 마을을 공산 세력의 영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낸 휘는 인민군이 퇴각한 뒤에 부역자로 의심받아 피신하고 결국 밀항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며 황제 역시 부역 행위를 의심받아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는다. 휘가 사라지고 농지개혁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황제를 모시던 배대기라는 인물이 서류를 위조하여 황제 일가의 땅을 가로챈다. 황제는 마지막까지 곁에 남은 소수 인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계룡산의 토막에 머물다 두 아들과 끝내 재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볼 때 황제는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이지만 해방 이후에 이념과 체제의 분열로 남과 북 모두에서 고초를 겪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도 영영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겪는 비운의 주인공이다. 그는 식민지 지배, 분단과 전쟁 속에서 한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체현하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민족 수난사를 대표하는 주인공이 된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지배에 순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편안한 삶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에게도, 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른바 민주를 가장한 남쪽의 '가왕(假王)'에게도 협력하지 않는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대결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분단을 가져온 외세와, 분단된 조국에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북과 남의 정치세력 모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 "삼팔선 이남에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이면 무어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
> "삼팔선?"
>
>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입니다. 원래는 미국과 소련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임시로 그은 선인데 점차 남북의 경계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 "한심하다. 조선땅이 뭐가 넓다고 두 동강이냐? 보나마나 소련이나 다른 양이들의 짓일테지. 옛날부터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것이가

분열시켜 지배한다는 것은 이 땅을 넘보는 외적들이 항용 써오던 수법이니까. 그래, 그 남쪽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오?"

"잘은 모르지만, 상해의 임시정부가 들어앉을 가망이 큽니다."

"그들이라면 역시 왕공을 폐하고 저희끼리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니 하며 나라의 대권을 넘보던 무리가 아니오?"

그리도 다시 탄식했다.

"참으로 난세로다. 한쪽은 허자류의 이단이요, 한쪽은 뱃속 검은 야심가의 무리니... 아아, 내 어디로 돌아갈꼬?"[15]

이제 세상은 민주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왕도 없고 신하도 없으며 오직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꾸민 자들은 상해 어디선가 임시정부를 꾸미고 있다던 그 민주 패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허울좋게 백성의 이름을 빌어 천명을 넘보는 자들이다. 잘 돼 간다. 북쪽 패거리들은 재물을 가지고 내 백성을 꾀고 남쪽 패거리는 명분으로 내 백성을 꾀니 머지않아 이 땅에 피바람이 불겠구나.[16]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선악의 이분법이 강요되는 이념적 대립 구도와 분단 체제 속에서 황제가 남과 북에 대해 모두 비판적 거리를 두며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외세의 음모를 지적하는 등 대단히 반골적인 제3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황제는 소련과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양이(미국)와 그와 연대한 "민주 패거리"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입장은 예컨대 황제가 6·25 전쟁중 피난길에 미군을 만나 맥아더 장군에게 그 공을 치하하는 편지를 보내는 대목에서도 은밀하게 드러난다. 황제는 이 편지에서

15)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49-50면.
16) 위의 책, 81면.

맥아더를 '神丘道行軍大摠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의 관직명이다.[17] 맥아더를 슬쩍 소정방과 동일시한 셈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정치적 암시가 담겨 있다. 소정방이 이끈 당나라 군은 신라와 연합군을 이루어 신라의 삼국통일을 지원했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는 신라를 공격했다. 맥아더를 치하하는 황제의 편지 속에는 맥아더로 대표되는 미군 역시 한국을 넘보는 외세에 나 마찬가지라는 메시지가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

지배에 저항하는 강직하고 비타협적인 황제의 반골 기질은 일제강점기에서 분단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난을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은 그의 인생 역정과 잘 어울린다. 그런 면에서 황제는 한민족의 수난사를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주인공이고, 그의 삶의 비극은 곧 한민족의 비극이며, 그 비극 속에서 한민족의 근현대사는 비판적 시선으로 조명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바보 황제의 저항과 고난의 이야기가 왜 희극적이기도 할까? 그것은 지배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상궤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의 독립운동가처럼 단순히 민족을 노예화하는 식민 지배자들을 몰아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직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꿈 꾸기에 분단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황당무계한 예언서에 따라 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자신이 이씨 왕조의 멸망 이후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씨 왕조에 대해서도 지극히 비판적이며 일제의 강압으로 이씨 왕조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 심지어 반가워하기까지 한다. 일본인들의 지배는 정도령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짧은 막간극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17)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개영의 선행 연구가 있다. 김개영은 황제의 편지에서 당나라 장군 소정방의 관직명을 읽어내고, "황제에게 있어서 맥아더를 위시한 미국 혹은 자유주의 세력 또한 이 나라를 넘보려는 '오랑캐'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김개영, 앞의 논문. 220면.

다.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황제는 백성이 드디어 자기 품에 안겨온다고 생각하고 감격하여 나섰다가 일본 순사와 충돌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황제는 전설적인 독립투사이지만 그를 일제와 충돌하게 만든 것은 우스꽝스러운 자기도취적 환상이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의 체제를 비판하고 불화를 겪는 것도 황제의 나라 '남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도 북한도 모두 경쟁자이며 방해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황제에게는 이를테면 『광장』의 주인공, 남의 밀실과 북의 광장을 모두 비판하며 어느 쪽에도 갈 수 없기에 중립국행 배에 몸을 실었다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이명준에게서 느껴지는 비장한 아우라가 없다. 사실 이념과 분단으로 부자가 영영 헤어지는 이야기는 이문열 자신의 비극적 가족사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이념 때문에 아들을 떠나는 대신 공산주의자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변형될 뿐이다. 이문열은 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바보 황제의 희극적 이야기 속에 풀어놓은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월북한 공산주의자의 아들로 남한에서 자라면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 극도로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했던 작가의 전기적 배경을 생각하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려 했을 때 그가 어떤 부담을 안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18] 그 부담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18) 이문열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성장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그가 유명세를 얻고 작가 생활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차 바뀌지만 초반까지는 이러한 억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국외자였지요. 그 까닭은 아마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사회는 살아 있었지만, 나는 연좌제 같은 것에 억압돼서 지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나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영향이 컸어요. 예를 들어 4 · 19 때 어머니가 노심초사 걱정하고 못마땅해하신 것은 형님들이 그 속에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싸울 때도 어머니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김호기, 이문열, 「보수도 진보도 짐을 덜라 기억하되 미화하지 말라」, 『신동아』, 2015년 6월 13일.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4021/1〉. 2021년 8월 1일.

는 남한에 남겨진 월북자의 가족을 따라다니는 의심의 눈초리와 권력의 편에서 음으로 양으로 전해져오는 압력이 그 하나의 부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 사회의 분위기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자칫하면 정권의 반공주의 이념에 복무하는 작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때 작가 자신과 결코 동일시될 염려가 없는 가공의 관점을 가진 인물에 의탁하여 남과 북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런 부담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더욱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 관점이 극히 비현실적이어서 독자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느껴질수록, 그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작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려지지는 않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문열은 이런 방식으로 발언의 공간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닐까. 소설의 다음 대목이 이러한 추측을 어느 정도 입증해준다. 서술자는 6·25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서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 6·25 — 그 끔찍하면서도 서글프고, 비극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 사건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의미 깊고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고 근년 들어 몇몇 용기 있고 지혜로운 동료가 그 진상과 민족적인 의의에 대해 사심없는 노력으로 집중적인 탐색을 시도한 바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략) 하지만 아직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 드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슬프게도 그런 점에서는 앞서 말한 우리의 동료들도 이렇다 할 예외를 보여주지 못했다.
>
> 은연중에 강요된 주관적 사관과 몸에 밴 양자택일의 논리로 그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나 합리적인 기술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동료들조차도 때때로 까닭 모를 악의와 쓸모없는 시비에 말려들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
> 거기다가 이 글은 처음부터 우리의 황제를 위하여 시작했다. 어차피

정확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악의나 오해를 일으킬 글을 쓰느니보다는 차라리 초지일관 황제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나으리라.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남이든 북이든 6·25는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모반이었다.[19]

서술자는 6·25에 대해 직접,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기를 포기하고, 황제의 입장에 따른다면 6·25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가정적 서술 방식을 택한다. 왜 6·25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모반이 되는가? 그것은 남과 북이 모두 황제가 꿈꾸는 환상의 왕국에 대한 반역이고 6·25를 통해 그 두 반역의 체제가 이 땅에 고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장은 과연 황당무계한 믿음에 기초한 황제의 입장만을 표현하는 것일까? 그 뒤에서 어떤 숨겨진 진의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즉 그 문장은 사실은 '남이든 북이든 6·25는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모반, 민족에 대한 모반이었다'라는 의미를 은밀히 전하고 있지 않은가? 서술자 혹은 작가는 망상에 빠진 바보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진실을 그 속에 함께 실어 보내는 복화술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서술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25에 대하여 말하기의 어려움은 순전히 이문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훨씬 더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으로서의 복화술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학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작가의 전기적 배경은 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복화술의 발생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20]

19)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94면.

20) 이러한 맥락에서 서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상세한 분석을 요한다. 서술자는 한 편으로 황제와 그의 추종자들의 망상적인 역사 기록을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합리적인 반론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만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진술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술자는 황제보다는 우월

이문열이 복화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황은 좀더 특수하게는 소설의 연재가 시작된 1980년의 급박한 정치적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억압적인 유신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김대중 등 탄압받던 야권 인사들이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서 민주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이 보였으나, 물밑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12월 12일 신군부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이 사실상 정부 내에서 실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국은 엄혹한 비상 시기에 돌입했다. 전두환은 학생 및 노조 소요를 사주한 혐의로 김대중을 구속시키고 김영삼에게는 가택 연금 조치를 내렸으며, 김종필은 부정축재자로 몰아 정계 은퇴를 강제하는 등,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정치세력을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곧이어 광주에서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8월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뒤에 9월에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0월에는 제5공화국 헌법이 선포되었고, 11월에는 민영 방송을 사실상 폐지하는 충격적인 언론 통폐합 조치가 취해졌다. 전두환은 이듬해 1월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군사 정권에 협조적인 관제 야당 민주한국당의 성립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81년 3월

하지만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 존재, 그래서 작가와 황제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서술자는 황제의 정치적, 역사적 견해를 언급하고 논평할 경우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면피성 발언을 하여 황제의 발언의 위험성을 완화하거나, 특히 황제가 피력하는 남한의 정치적 발전에 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공감을 표함으로써 소설 전체를 더 우편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황제가 “북쪽 패거리들은 재물을 가지고 내 백성을 꾀고 남쪽 패거리는 명분으로 내 백성을 꾀니 머지않아 이 땅에 피바람이 일겠구나” 하고 탄식할 때 서술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란 것이 과연 명분이라고만 몰아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등(…)을 재물로 백성을 유혹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자못 예리한 관찰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81-82면.) 서술자의 편향은 황제의 목소리를 소설 자체의 입장에서 더 멀리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

에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전두환이 권력을 일사천리로 장악하며 "일상적 감시체제"[21]를 강화해나간 이 시기는 무도한 정권 찬탈과 개혁으로 위장된 폭력적 반민주적 조치에 대해 조금의 비판적 목소리도 허용되지 않던 시기, 언론도, 정치도 얼어붙어 버린, 그야말로 동토의 계절이었다.

『황제를 위하여』의 연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엄혹한 시기의 한복판이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1972년에 황제가 사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술자가 6·25의 역사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남북 사이의 이념 논쟁과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현대사 서술의 '방향성' 자체가 늘 첨예한 정치성을 지닌 문제이고, 따라서 반공주의와 같은 체제의 공식 노선을 벗어나서 한국 현대사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작업에는 특별한 위험이 수반된다. 특히 김대중의 좌경성을 빌미로 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권력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고난에 찬 한국 근현대사의 줄기를 관통해 가며 저항하는 주인공이 허무맹랑한 예언서를 추종하는 바보 황제라는 설정은 그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정치와 역사를 비평할 수 있게 해주는 차폐막이 된다.

정치적 보호 장치로서의 '바보'라는 수사와 연관지어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서술자가 취재를 통해 황제의 "실록"을 접하지만 자신이 본 내용을 연의체로 서술하겠다고 선언하고 삼국지연의의 톤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문자 문명 전통에서 연의는 역사를 소재로 하되 오락적 목적에서 자유롭게 허구를 가미한다는 점에서 실록과 같은 정

21) 이창언,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공안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53,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3, 72면.

사에 비해 열등하고 진지하지 못한 양식으로 여겨져왔다. 이문열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연의체는 그 자체로 진지하지 못함, 진실이 아님, 장난스러움, 통속성의 함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근대 소설 이전의 전통 서사 양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바보 황제의 시대착오적 정신에 상응하는 양식적 차원의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하여』는 역사를 소재로 한 구식 통속 오락물의 외관을 띠는바, 이러한 양식적 시대착오는 시대착오적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부조화가 촉발하는 웃음을 더욱 강화하는 희극적 효과를 지니며, 그런 만큼 이 소설은 심각한 현실적, 역사적 담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문열에게 장난기어린 희극적 포즈와 바보 흉내야말로 무자비한 권력의 억압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제3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가능성으로 보였으리라는 가정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본다면 이문열은 우스꽝스러운 바보 주인공에 관한 오락적 이야기의 외피로 몸을 감싸고 엄혹한 시절을 건너가려 한 것일 수 있다.

3.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대결과 동양 담론의 의미

정 처사는 자신의 아들이 예언서에 언급된 정도령이라고 확신하고 어려서부터 스승을 모셔다가 제왕학을 교육시킨다. 시대는 너도나도 옛 학문을 버리고 서양 학문으로 뛰어드는 때였지만, 황제는 제자백가를 비롯한 중국 사상과 역사의 세계 속에서 성장한다. 이를 서양 문명과 이념과 대비하여 동양 담론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황제는 동양 담론이라는 필터로 현실을 지각하고, 동양 담론의 입장에서 현실에 관해 생각하고 말한다. 이때 동양 담론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과 대립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황제가 직면한 현실은 정감록 같은 예언서 속의 현실과는 동떨

어진 새로운 현실, 구한말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된 서양 문물과 이념의 압도적 영향 아래 형성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대립시킨 것에서 김명인처럼 작가의 복고주의, 전통주의, 탈서구주의적 입장을 읽어내려는 해석이 있다.[22] 이문열이 『황제를 위하여』에서 황제와 그의 추종자들의 입을 통해 펼쳐 보이는 동양 담론이 바로 이문열의 고향이자 정신적 뿌리인 영남의 세계에 잇닿아 있다는 것, 게다가 이문열이 훗날 『선택』(1997)과 같은 소설에서 노골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이 그러한 해석을 정당화해준다. 이문열의 정치적 무의식과 문제틀을 "영남 남인들의 존숭"[23] 그리고 "문중과 가문의식에 의해 성립된 문화적 전통"[24]으로 규정해 온 기존의 연구자들이 『황제를 위하여』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도 정치론자들"[25]을 고향과 문중의 전통으로 본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게다가 이문열이 동광출판사에서 나온 『황제를 위하여』 초판에 붙인 서문을 보면, 동양 담론을 통한 서구적 문명의 비판과 극복에 소설의 의도가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작가 자신이 확인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모든 것들 – 과학과 합리주의, 갖가지 종교적 이념, 그리고 금세기를 얼룩지게 한 몇몇 정치사상 등등 – 이제는 거의 아무도 그 유용성이나 정당함을 의심하려 들지 않는 것까지도 순전히 동양적인 논리로 지워 보려 애썼다."[26]

물론 한 편의 소설 작품을 반드시 작가 자신이 서문에 밝힌 의도에 따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읽어보면 유용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까지 순전히 동양적 논리로 지워보려 했다는 작가의 의도가

22) 김명인, 앞의 글 참조.

23)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정통성과 현실주의」, 『이문열』, 살림, 1993, 16면.

24) 위의 책, 21면.

25) 위의 책, 20면.

26)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알에이치코리아, 2020, 10-12면. 알에이치코리아에서 2020년에 새롭게 출간된 『황제를 위하여』에는 1982년 8월에 이문열이 작성한 동광출판사 초판 서문이 실려 있다.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소설에서 동양 담론을 구사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황제와 그의 일부 추종자들이 우스꽝스러운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과연 작가가 동양적 논리를 진지하게 관철하려고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마도 그래서 김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그는 전통적 문화에 회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 하지만, 그의 소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판한다. 『황제를 위하여』는 일종의 모순의 소산이다."[27]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왕당파였던 발자크가 리얼리즘 소설가로서 귀족의 몰락과 부르주아의 발흥을 정확히 그려냈다고 하는 '리얼리즘의 승리'에 관한 엥겔스의 논리를 연상시키는 김현의 테제는 소설가의 복고적 이데올로기와 소설이라는 장르의 근대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황제를 위하여』가 놓여 있다는 진단을 제시한다.

김현은 이 모순이 작가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말한다. 『황제를 위하여』가 동양적 논리로 회귀하려는 욕망과 뛰어난 소설가적 감각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며, 이 충돌은 작가의 의도나 의식 너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곳곳에서 이 "동양적 논리"가 황제에 의해 부적절하게, 명백히 시대착오적이고 자의적으로 동원되어 웃음을 자아낸다면, 이문열이 진지하게 동양적 논리를 관철하려 했다는 주장도, 동양적 논리를 향한 욕망이 그저 무의식적으로만 부정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소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대목에서 동양 담론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조롱되고, 어떤 대목에서는 자못 진지한 토론과 논쟁의 기반이 된다. 이는 작가가 동양 담론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 갈등'이라는 김현의 설명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27) 김현, 앞의 책, 98면.

으로 보인다.

황제와 그의 일파가 동양 담론에 의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의 지침을 얻으려 할 때, 둘째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려 할 때, 셋째는 적의 주의 주장을 논박하려 할 때. 대체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동양담론은 시대착오, 비현실성, 견강부회 등의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매복하여 일본군을 기습하려는 작전을 세우면서 황제와 그의 책사 방량은 전적으로 전통적 병법에 의존한다.

> 또 "이곳의 지형은 절간(絕澗), 즉 높고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인 계곡에 가까우며 적으로 보아서는 중지(重地), 즉 적국의 땅 깊숙이 들어가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땅에 해당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적의 군사는 저절로 합심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게 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닥 혈로(血路)조차 남겨두지 않으면 적은 마치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듯 아군의 사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방량은 정말 小 공명이라도 된 듯하였다. [중략] 그런데 바로 그 트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방량의 고전적인 전략에는 트럭 같은 현대적인 기동 수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었다.[28]

황제의 제갈공명이 이런 정도이니, 황체 군사의 참패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유형에서 동양 담론 활용법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또는 커다란 실패 앞에서 낙담과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고 위안을 얻기 위해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의 고사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정 처사는 윤 산인과의 약속을 버리고 황 진사의 딸과 황제를 혼인시키려 할 때 제왕의 업을 위해 원수인 손권의 누이와 혼인한 유비를 예로

28)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88면.

든다.[29] 일본군에게 참패한 뒤 자결을 시도하는 황제에게 방량은 항우의 고사를 인용하며 마음을 달래준다.

> "설령 우리 군사가 전멸했다 한들 항우가 잃은 강동(江東)의 자제 팔천에 비하겠습니까? 그런 항우가 오강에 몸을 던진 것도 용렬하다고 비웃거늘 어찌 몇십 명의 사졸을 잃은 것으로 그토록 상심하십니까?"[30]

이렇게 동양 담론을 활용하는 습관은 서술자에게도 전염되어 황제가 기차를 처음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가 물웅덩이에 쳐박힌 장면 뒤에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논평이 따라온다.

> 황제의 기계문명에 대한 무지가 민망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나, 누군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단 말인가. 에도 막부를 세워 근세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도 다케다와의 한판 싸움에 몰리자 말안장에 생똥을 싸붙였고, 일세의 효웅 조조도 마초에게 쫓길 때는 투구를 벗어던지고 수염을 자르지 않았던가. 목숨이란 살아 있어 조금이라도 소용에 닿을 것인 한, 그걸 아끼기 위한 어떤 볼썽사나움도 흉볼 수 없다. 하물며 장차 이 나라 수천만 생령을 어르고 보살필 황제에 이르러서야.[31]

이문열은 고사의 끊임없는 인용을 통해 폭넓은 동양 고전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 사이의 유비 관계를 통해 폭소를 유발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호걸과 다소 정신 나간 몽상가 황제 사이의 견강부회식 비교는 동양적 교양의 세계에서 그 장엄한 무게를

29) "예부터 수많은 제왕이 이러한 혼인의 본보기를 보여왔다. 한의 원제도 일개 흉노의 선우(單于)에게 왕소군(王昭君)을 보내었고 소열황제劉備는 뒷날 관왕(關王)을 죽인 손권의 누이와 혼인하였다."(위의 책, 67면.)

30) 위의 책, 93면.

31) 위의 책, 117면.

빼앗고, 이를 진지하지 않은 희극적 조명 속에 옮겨 놓는다. 그리하여 동양 담론은 방량의 고전적 병법에서처럼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한 담론으로 드러나거나, 이현령 비현령 식의 상투적 수사법으로 전락한다.

이와는 꽤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념적 토론과 논쟁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동양 담론이다. 황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적은 한번도 없지만, 이념적 적수와의 논쟁에서는 꽤나 훌륭한 전적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황제가 백석리에 찾아온 기독교 전도반원들을 톡톡히 혼내어 다시는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 일이다. 황제는 현세를 중시하는 공자의 사상과 노자의 반목적론과 이태백의 풍류를 총동원하여 기독교의 인격신 이론을 격파하고 기독교를 양이의 침략을 위해 민심을 현혹하려는 요망한 사교로 단죄한다. 기차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웅덩이에 빠졌던 황제가 탁월한 언변과 재치로 기독교 전도사들을 빨래터 앞 개울물 속에 빠뜨리는 장면은[32] 바보가 돌연 현자로 바뀐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며 시대착오적 정당화에 동원되던 동양 담론이 논쟁의 날카로운 칼로 기능 전환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결정적인 대목은 황제와 공산주의자 이현웅의 논전이다. 이현웅은 황제의 만주 농장에서 소작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한다. 황제는 이현웅을 잡아들여 그의 논리를 들어본 뒤, 그것이 임금이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도 손수 지어먹어야 한다는 허자의 주장과 결국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맹자의 논박을 통해 공산주의를 반박한다. 맹자는 허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상에게 왜 허자가 농사는 스스로 지으면서 그 외에는 관도, 옷도, 쟁기도 남이 만든 것을 가져다 사용하는지 물어본다. 진상이 그렇게 전부 스스로 하다가는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자, 맹자는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은 농사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결정적인 반문을 던진다. 여기서 맹자는 다스림이란

32) 위의 책, 168면.

백성에게 질서를 제공하는 정신적 노동으로서 농부나 장인들이 생산을 위해 행하는 육체적 노동과 일종의 교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33] 이는 황제에게 지배(이는 맹자에게서는 '다스림')를 곧 생산자에게서의 착취와 동일시하는 공산주의 이론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논거가 된다. 지배란 철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배와 착취의 철폐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현재의 지배를 또 다른 형태의 지배로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선전술일 뿐이다.

> "결국 너희들은 무슨 천지개벽이나 되는 것처럼 혁명을 말하고 있으나 이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다스리는 자가 달라지고 빼앗기고 혹사당하는 구실이 달라질 뿐이다."[34]

공산주의 이념과의 대결이 상세하게 서술되는 것과는 달리, 황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는 잘 알 수 없고,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형태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이념에 대해서도, 황제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그 비판이 어떤 논리에 입각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황제는 다만 다소 모호하게 "민주 패거리"를 "백성의 이름을 빌어 천명을 넘보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뿐이다. 황제는 어떤 근거에서 그들이 "명분으로 내 백성을 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단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가천하 사상, 즉 천하가 천명이 정한 왕에게 귀속된

33) 황제는 맹자의 논쟁을 직접 인용한다. 그 가운데 맹자의 결론이다. "또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공장이가 만든 것이 모두 필요한데, 반드시 그걸 다 자기가 손수 만든 다음에야 쓸 수 있게 된다면 천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에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말이 있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서 얻어먹는 것이 온 천하에 통하는 원칙이다."(위의 책, 292면.)

34)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290면.

것이라는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거짓 명분이라고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인지 서술자 역시 이 부분에서는 황제의 비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서술자는 황제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등이 재물로 백성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본 데 대해 자못 예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란 것이 과연 명분이라고만 몰아부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35]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황제의 이념 비판이 논리적으로 빈약해지는 지점에서 그 비판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황제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보편성에 기초한 지배를 약속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그 명분에 현혹된 백성은 특정한 집단에게 지배 권력을 바치게 된다. 보편성의 외관 뒤에 특수성이 숨어 있다는 비판적 논리는 황제의 이념적 대결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이다. 공산주의 비판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는 계급과 착취의 철폐와 노동하는 대중 자신에 의한 지배를 약속한다. 공산주의 역시 이처럼 지배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배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특정 권력이다. 기독교는 세계를 주재하는 유일신 여호와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황제가 보기에 여호와는 하늘의 보편성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황제는 "저 무한하고 형체 없는 하늘에 너희는 멋대로 여호와란 이름과 사람의 형상을 덮어씌우고, 오묘하고 심원한 뜻을 몇 권의 경전 속에 담았다고 주장하니 그 어찌 혹세무민이 아니랴."[36] 하고 일갈한다.

그러나 지배와 권력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황제를 근본적인 자가당착 속에 빠뜨린다. 지배와 권력을 어떻게 보편적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정감록의 예언에 따라 나라의 땅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믿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황제 자신에게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국가가 왕의 땅이고 권력은 왕가에 속한

35)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81면.
36)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170면.

것이며 왕은 천명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어떤 논증이나 객관적 증거도 필요 없는 절대적 전제로 주어져 있다.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황제는 남조선의 새로운 국시를 중사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타중사(打衆邪)라고 정하는데, 이때 중사는 "이 땅의 적신(賊臣)들 외에도 그들을 후원하는 소련 중공 기타의 모든 외부 침략 세력과, 황제의 가천하(家天下) 및 천명(天命) 사상을 거부하는 일체의 사상·종교를 포함하는 개념"(『황제를 위하여』 2권, 73면)이다. 가천하와 천명 사상은 어떤 근거로 그러한 보편성과 절대성을 확보하는가? 그것 역시 특수한 집단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명분은 아닐까?

따라서 황제가 논쟁을 통해 기독교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등 외래의 지배 이념과 종교를 물리칠 때, 이를 단순히 동양적 논리로 서양적인 것을 지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황제가 구사하는 동양 담론의 근본 바탕에 있는 가천하와 천명의 이념이 기독교든, 마르크스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이념도 결국 특수한 지배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는 황제 자신의 비판에 면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공자와 예수가, 맹자와 마르크스가 동서 이념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황제의 능란한 언변과 해박함이 독자에게 동양적이고 고대적인 것이 서양적이고 근대적인 것에 역전승을 거두는 듯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심층에서 진행되는 것은 모든 지배와 권력의 보편성을 해체하는 비판 작업,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비판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양에 대한 동양의 유쾌한 승리라는 외관은 이 소설을 보수적 전통주의의 틀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며,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이념에 대한 비판을 첨예한 정치적 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수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노장담론이라는 장치: '지배'에 대한 비판의 급진화와 탈정치화

『황제를 위하여』를 한국 근현대사를 지배했던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담론들의 대결로 읽는다면 최후의 승자는 도가, 즉 노장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는 최종적으로 도교에 귀의하며 무위자연의 이상이 실현된 정신적 왕국을 꿈꾸며 세상을 떠난다. 정감록의 예언을 믿는 황제의 신념 체계라는 것이 어차피 잡다한 사상들이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천명 사상이라는 유교적 통치의 이상에 경도되어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마지막에 와서 급격하게 도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37]

유교에서 도교로의 전환은 일단 앞에서 지적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배에 대한 비판'에 내재하는 자가당착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황제가 일관되게 '지배'에 대해 비판하는 요점은 지배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늘 특수한 권력 집단의 욕망을 은폐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 비판의 논리는 황제 자신의 천명 사상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황제가 이를 피하는 길은 스스로 지배를 포기하는 것뿐이다.

> "짐이 일찍이 천명을 받아 포의(布衣)에서 몸을 일으킬 때 뜻은 다만 작은 패도에 있었다. 삼군과 오병으로 천하를 바로잡고, 상벌과 이해(利

37) 서술자도 황제의 종교적 전회를 갑작스러운 것으로 본다. "경위야 어찌됐던 삼청전 설치를 계기로 황제의 도교열은 급작스레 불붙었다. 얼핏 보면 엉뚱할는지 모르지만, 그 무렵이 황제가 가장 암울했던 시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반드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황제를 암울하게 만든 것들 중에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남북의 안정이다. 휴전이 된 지 어느덧 오 년, 황제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의 거적들은 갈수록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해졌고, 백성들은 여전히 천명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순응하고 있었다.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천하를 아우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더욱 어려웠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201면.)

害)와 오형(五刑)으로 백성을 교화하며, 정비된 제도의 법령으로 다스리려 하였다. 그러나 삼군과 오병을 쓰는 것은 덕의 끝이요, 상벌과 이해와 오형을 쓰는 것은 교화의 끝이며 정비된 법령과 제도는 다스림의 끝이니 어찌 하늘의 큰 뜻에 부응할 수 있으랴."[38]

황제는 이제 유가와 법가를 혼합한 듯한 이런 동양적 통치 이념마저 버리고 완전한 무지배의 이상을 선포한다.

"짐은 이제 나도 잊고 남도 잊고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도 잊으며 다스림도 잊고, 어리석음과 슬기로움도 잊으며, 잊으려 함도 잊겠노라. 마른 나뭇가지 같고 불 꺼진 재 같으며 흙 같고 바람 같기를 바라노라. 짐이 오늘 구오(九五)의 위(位)로 나아간다 함은 바로 이 깨달음을 비유한 말이니, 어여쁜 신자(臣子)들아 이 뜻을 알겠는가? 다스림을 잊으니 땅 위에서는 왕 중의 왕[王中之王]이요, 하고자 함이 없으니 하늘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天神之道]로다."[39]

무위자연의 정신을 추구하는 황제는 다스림을 잊음으로써, "다스리려고도 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40]음으로써 최고의 왕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배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급진적인 국가와 지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저 백성도 나와 한가지로 우주의 한 조각임을 알며, 자연에 합하여 타고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관청의 장부에 무슨 나라의 재산처럼 이름이 올려진 후, 걸음을 떼고 말을 배우기 무섭게 어른들과 선생이란 작자들로부터 서로 속이는 재주와 까다로

38) 위의 책, 246면.
39) 위의 책, 250면.
40) 위의 책, 251면.

> 운 나라의 법령을 머리가 터지도록 배워야 하며, 나이가 차면 등뼈가 휘도록 일해 얻은 것의 절반을 알게 모르게 세금으로 빼앗겨야 하고, 혹은 부역에 끌려나가며 더러는 싸움터에서 그 가장 귀한 것(목숨)까지 바치도록 강요당하고, 작은 죄를 지으면 깜깜한 감옥에 갇히고 큰 죄를 지으면 그 목이 달아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조차 나라의 자원을 축낸 것과 똑같이 처벌당하여, 저절로 목숨이 끊어지는 날에야 그 같은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이니, 그게 어찌 백성의 참모습일 것이냐?[41]

모든 지배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에 가까운 이러한 황제의 발언은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던 유신 체제와 그 뒤를 이은 군사 정권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강력한 현실 비판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 지배 비판의 구체적인 정치적 의미는 황제가 저 발언의 끝에서 "짐은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내 백성을 그 같은 사슬에서 풀어주고자 한다"고 덧붙임으로서 탈색된다. 황제는 다스리려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 없이 실제로 거의 아무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결단으로 백성을 사슬에서 풀어줄 수는 없다. 황제는 말년에 이르러 몇 명의 추종자밖에 남지 않았고 배대기에게 배신당하여 땅도 모두 잃었으니 다스리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큰뜻을 품은 이래 가장 무력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국의 역사는 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 분단 상황은 고착되었고 남한과 북한은 좌우 독재의 성을 강고히 쌓고 한반도를 분할하고 있었다. 무력할대로 무력한 황제, 지배하지 못하는 지배자인 황제의 지배 포기 선언은 아무런 현실적 효과를 남기지 못한다. 황제는 지배에 대한 비판을 환상 속의 나라 "남조선"에 관한 것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비판과 가혹한 정치 현실 사이의 관련성을 희석시킨다.

41) 위의 책, 251면.

게다가 황제의 생각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부정하는 장자류의 초월주의, 정신주의를 지향하면서 더욱 더 현실성을 잃고 추상화와 이념화의 길로 나아간다.

> 두공이여, 그대와 나는 모두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그대는 꿈에서 깨어나 혹 같고 고름 주머니 같은 삶의 껍질을 벗었으니, 내가 슬퍼함은 그대를 여읜 탓인가? 아니면 아직도 깨지 못한 나를 위함인가?[42]

> 우리가 무사히 삼한을 평정하고 요동의 옛땅을 회복한들 저 아득한 우주에 비해 무엇이겠소? 거기다가 지금은 그나마도 얻지 못해 궁벽한 산골에서 앙앙불락이었소.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 온 이 작고 초라한 나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오. 우리들의 진정한 나라는 드높은 정신 속에 있고, 드높은 정신은 육신에 구애되지 않는 법이오.[43]

이상의 논의에서 소설의 결론처럼 제시되는 노장 담론의 이중적 의의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한 편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애국심을 강요하던 군사 정권 시대의 국가주의 담론에 맞서 급진적인 지배 비판을 뒷받침해주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비판을 탈정치적이고 관념화된 정신주의로 포장하여 거의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문열이 군사 독재의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과대망상적 황제와 노장 담론을 통해 그러한 비판의 정치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했다는 가정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현장에 황제를 직접 연루시켜 이야기를 전개하던 방식이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서술자는 군사정변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5·16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42) 위의 책, 243면.
43) 위의 책, 240면.

다. 실록에는 다만 문무의 본분에 관한 황제의 장황한 논의가 있을 뿐인데 모두 기억하기도 힘드려니와,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대로 전하기에는 그리 적합한 내용이 못된다"(『황제를 위하여』 2권, 218면)라는 아주 짧은 서술만으로 건너 뛰고 만다. 황제는 군사 쿠데타라는 심각한 사태를 멀리서 구경하듯이 흘려보내고, 그나마 문과 무의 본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했으나 이는 서술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생략해 버린다. 황제가 문무의 본분을 운운했다면 정치에 뛰어든 군인들을 비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서술자는 정치 군인들에 대한 황제의 비판을 이처럼 살짝 암시만 하고 그것을 자세히 밝혀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논의를 회피한다. 비판을 하고는 싶으나 그에 대한 후과가 두려워서 책임을 미루어 버리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바로 황제의 거처 근처에서 트위스트 추던 남녀 대학생들을 어이없게 훈계하는 우스꽝스러운 황제의 에피소드로 채워질 뿐이다. 결국 군사정변과 황제의 돌연한 장자류 사상으로의 경사는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굳이 5.16 이후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 이미 황제는 무위자연, 물아일체의 지경에 도달했으니 현실과는 어떠한 대결도 할 필요가 없으며 대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작가가 비판해야 하지만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지금 여기의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기 위해 주인공을 현실에 초연한 신비주의적 도교의 세계로 서둘러 보내버린 것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지배에 대한 비판, 지배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한 편으로 근본적이고 급진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흘러가면서 현실에서 멀어져 오히려 현존하는 지배의 구체적인 악덕을 방조하고 심지어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장담론에 빠져든 황제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스꽝스러울지라도 끊임없이 역사적 대사건들과 맞서며 크고 작은 사고들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성, 기독교 및 서양 사상과 이데올로기, 남과 북이라는 체제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던 황제의 모험이 그 탄력성과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 글에서는 황제 말년의 이러한 사상적 궤적이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정치적 비판이 극도로 어려운 시대에, 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근심해야 하는 월북자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한 작가가 그래도 정치적 비판을 시도하면서 그 정치성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설정한 장치로 해석하였다. 마치 황제의 망상과 바보-성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볼 때 황제가 도달한 노장 사상의 깨달음 속에 숨어 있는 군부 정권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독해의 전제는 작가가 황제의 초월적 정신주의와 분명한 거리를 두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천하를 아우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더욱 어려웠다. (중략) 거기서 억눌린 황제의 야망과 패기는 차츰 종교적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인바, 그 뚜렷한 징후가 이미 설치한 삼청전에다 다시 태일전을 더한 일이었다.”(『황제를 위하여』 2권, 201면)라든가 “가만히 살피면, 한결같이 장자류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약유가 떠남으로써 도교류의 잡술과 멀어지게 되고, 두충이 죽음으로써 정감록이란 토속 신앙적인 조잡한 신념 체계의 자극이 줄어들자 더욱 이념화 내지 추상화되었다.”(『황제를 위하여』 2권, 234면)와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교나 노장사상에 경도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정한 서술은 분명 그러한 거리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도 나타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반부로 올수록 황제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점점 더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그동안 희극적이었던 소설의 분위기도 비극적이고 장엄한 색채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서술자는 결말부에 이르면 황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자의 판단

을 요구했던 입장을 바꾸고 '우리의 황제'라는 호칭을 쓰면서 독자에게도 황제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한다. 마지막에 황제가 하늘의 깨달음을 얻고 죽음을 향해가는 모습을 보면 소설 전반을 종횡무진하던 허황된 '바보'의 면모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고 환한 도의 문을 그 꿈속에서 지났노라"(『황제를 위하여』 2권, 256면)라고 말하고 신하들과 자신들의 모험을 "한바탕 꿈이라고 누구든 꾸어보고 싶은 꿈이었으리라"(『황제를 위하여』 2권, 257면)라고 정리하며 신하들을 다독이는 황제의 모습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수장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한다. 즉 거의 마지막에 이르면 '바보 황제'는 사라지고 세상의 모두가 다 미망에 빠졌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깨달은 자'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다.

> 역사라고? 그러나 그 또한 힘 세고 꾀 많은 자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사람이란 그 천성이 본래가 선하며, 서로 돕고 의지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법이니, 나라니 하는 것이 없어도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만 되풀이해 가르쳐 보아라. 백 년도 가기 전에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44]

이 소설을 이끌어갔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원천인 '바보 황제'라는 고유성을 이러한 전회를 통해 완벽히 '깨달은 자'로 만드는 순간, 황제의 모험은 '실패'가 아니고 노장사상으로의 귀의도 실패나 무력감에 따른 도피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 세계의 아귀다툼에서 스스로 벗어난 '초월'이 된다. 황제는 신선처럼 세상의 시비를 따지지 않기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초월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의 외적인 모험은 실패했으나 그 실패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극복되는 듯한 인상이 생겨난다. 이문열은 황제의 그러한 존재 전이를 통해 세계와 불화하던 자아가

44) 위의 책, 253면.

마지막에 내적 화해에 이른다는 서사적 도식을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때부터 황제가 하는 말들은 어딘가 소설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듯한 작가의 육성처럼 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판본에서는 사라졌지만 1995년까지 존재했던 이 소설의 에필로그 한 구절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측은 더욱 명확해진다. "황제를 위하여, 그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부기하는 에필로그는 황제의 진정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모험의 실패를 표면적인 것으로 돌리고 이를 '승리'와 '영광'으로 재의미화함으로써 서술자, 그리고 작가가 동시에 황제를 옹호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이 에필로그는 95년 12월 고려원 3판 인쇄 때부터 사라지지만[45], 애초에 이러한 에필로그가 있었다는 점은 후반부에 와서 작가의 의식이 적극적으로 지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쩌면 작가 자신의 지배에 대한 비판도 지배 자체라는 추상적 차원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황제의 의식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편성으로 정당화하는 모든 지배 형태와 이념에 대한 불신은 실제로 모든 지배를 철폐하려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세상 어디에나 지배가 없는 곳은 없기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지금 여기의 지배 질서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방조하는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정당한 지배는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지배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정신의 왕국으로 도피하겠다는 황제의 결심은 당면한 폭정에 대한 침묵과 체념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무력한 허무주의이며, 소설 전반을 유지해오던 황제와 서술자, 작가 사이의 긴장감이 이 지점에서 거의 해소된다는 것은 작가 자신의 인식도 이러한 입장에 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45) 김미정, 앞의 논문, 147면 참조. 이 에필로그의 존재, 그리고 이후 에필로그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미정이 논의한 바 있다.

5. 결론

『황제를 위하여』 이후 1984년, 이문열은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웅시대』를 출간하게 된다. 『영웅시대』에서 보이듯 이문열은 좌파 민중 진영을 검증하는 비판자로서 자신의 정치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입장을 이후 소설 전반에 드러내었으며 이는 연구자들에게 이문열 작품 세계의 주요 특징으로 평가되었다. 이문열이 그리는 '이념의 허구성'이란 그 복잡다단한 세목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좌파 민중 진영에 대한 거부로 귀결되곤 한다.

『황제를 위하여』에서 여러 이념 및 종교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산주의에 대한 반박이 그 중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도였다면, 『영웅시대』, 『미로일지』, 『변경』으로 이어지는 소설들에서는 민중 진영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소설 바깥의 여러 행보들과 함께 작용하여 이문열에게 민중 진영의 정반대에 선 보수주의 우파 작가라는 '명성'을 안겨주기에 이른다. 『황제를 위하여』에서 단초를 드러낸 모든 지배 이념에 대한 회의주의는 80년대 한국 지식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민중 이념에 대한 집중적 비판 시도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웅시대』 이후 이문열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 그리고 이문열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존의 평가들을 의식한다면, 『황제를 위하여』는 이와는 약간은 대비되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후 이문열의 보수성을 설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실마리들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특정한 이념에 대한 회의에 편향되기보다는 외세와 외래의 거대 담론들, 그것이 초래한 근대와 분단과 양 체제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정치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후 소설들과는 변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생겨난 엄청난 공백, 이후 또다른 독재자인 전두환이 정권을 쥐게 되는 단절과

연쇄라는 80년의 경험 속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려는 이문열의 시도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혔지만, '보수 우파'로 정체화되기 이전 시기의 서사적 대응으로서 당시 이문열의 정치적 입장을 가늠하게 해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1권, 민음사, 2011.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민음사, 2011.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알에이치코리아, 2020.
『조선일보』
『신동아』

2. 단행본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류철균 외, 『이문열』, 살림, 1993,
김현, 「베끼기의 문학적 의미」, 이태동 외, 『이문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정통성과 현실주의」, 『이문열』, 살림, 1993.

3. 논문

김개영,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의 전통 서사(양식)의 변용 양상」,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201-228면.
김미정, 「『황제를 위하여』 와 "Pour l'empereur!" 사이」, 『한국근대문학연구』 17권 2호, 근대문학회, 2016, 141-172면.
이노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화용론과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6권 4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10, 223-238면.
이창언,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공안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53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3, 71-84면.
심지은, 「러시아와 독일의 민담에 나타난 바보 인물의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23권 1호, 한국러시아문학회, 2004, 127-154면.
정재서,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에 대한 전통소설론적 접근-소설 문법의 다원화를 위하여」, 『중국소설논총』 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8, 11-25면.

<Abstract>

The Myth of Idiot King and the Politics of Ventriloquism

Oh, Ja-eun

This study examines critically two conflicting views on Lee Mun-yol's "Hail to the Emperor," namely the interpretation of the novel as a Korean version of "Don Quixote" and as a retro novel celebrating the victory of the Eastern philosophy over the Western, and shows that both the quixotic hero who is stuck in his anachronistic illusion and his Eastern philosophical discourse function as a kind of literary device which makes it possible to say about the complicated modern Korean history in the time of political oppression and anticommunism. The novel, serialized from 1980 till 1982,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reflect the entire Korean modern history to understand th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of Korean society which led to a new military coup and the tragedy of Gwangju in 1980. Under the cover of pseudoreligous faith, Eastern philosophical discourse and vulgar-archaic narrative style, the novel presents the tragic history of Korean people in the 20th century and criticizes the foreign powers and their modern ruling ideologies that gave rise to the Korean tragedy.

Key words: Yi Mun-yol, Hail to the Emperor, Eastern philosophical Discourse, Division of Korea, critique of power

투 고 일 : 2021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1년 9월 23일